

제 19 회 원 주 시

한 국 오 노 칠 공 예 대 전

제 19 회 원 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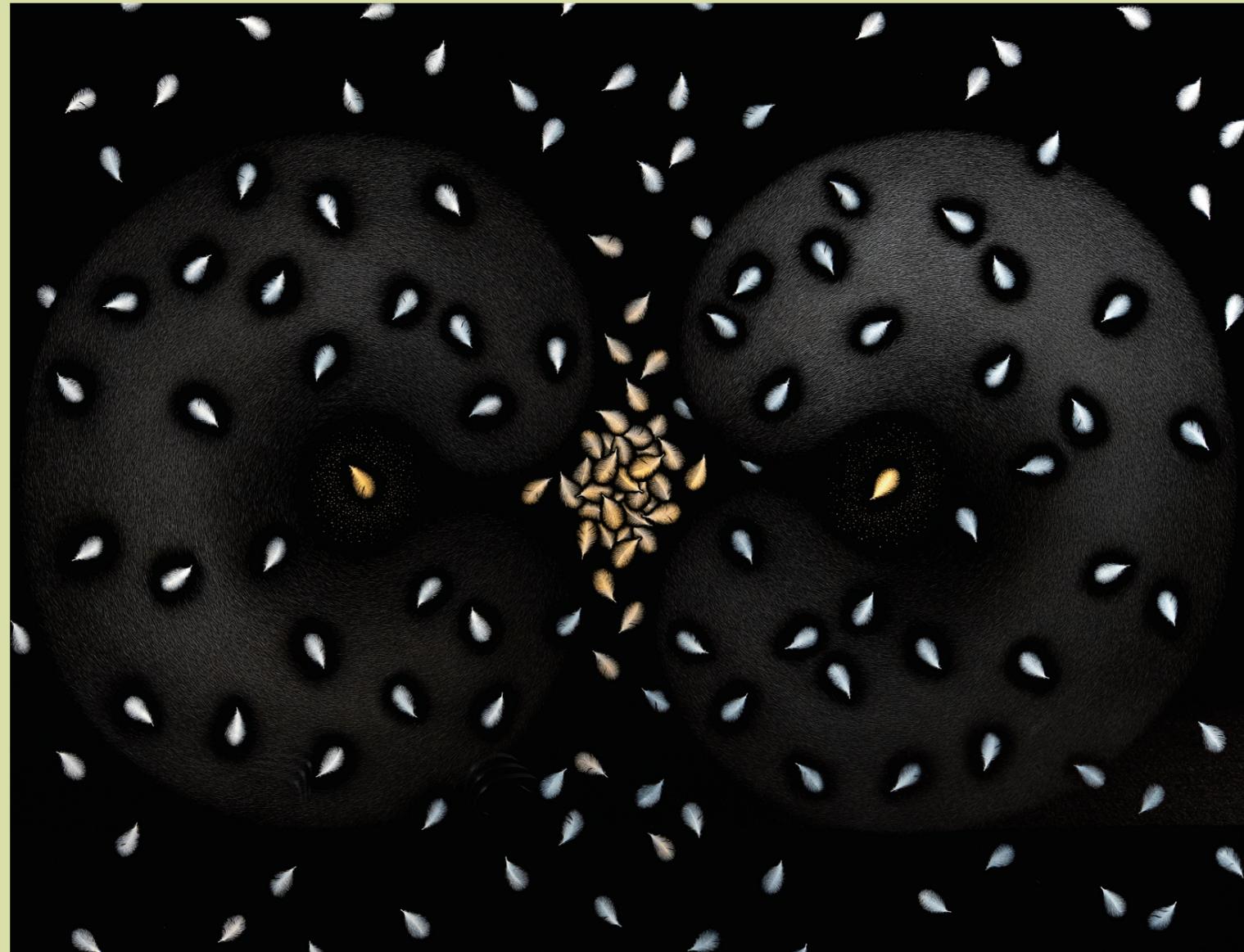
한 국 오 노 칠 공 예 대 전

THE 19TH WONJU-KOREA LACQUER HANDICRAFT ART EXHIBITION

THE 19TH WONJU-KOREA
LACQUER HANDICRAFT ART EXHIBITION

 원 주 옷 문 화 센 터

강 원 도 원 주 시 봉 산 로 20 Tel. 033)745-0160 Fax. 745-0162
E-mail : wonjuott@naver.com http://www.wonjuottchil.com



제19회 원주시

한국 오노 칠 공예대전

온라인전시

원주옷문화센터 홈페이지

www.wonjuottchil.com

전시기간 : 2020. 10. 27.(화) ~ 11. 20.(금)

주최 :  원주시 주관 :  (사)원주옷칠문화진흥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원주시의회

문화유산현장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의 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유산현장을 제정한다.

- 1.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 1. 문화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1.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
- 1.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 학교, 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 1.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1997년 12월 8일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장 원창묵입니다.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이 옷칠 작가님들의 열정과 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에 19회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작품활동 여건이 좋지 않았을텐데도 수준 높은 작품으로 함께해주신 작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옷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가장 오래된 천연 도료입니다. 옷칠의 깊고 우아한 빛은 예술품을 더욱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향균, 방습 등 뛰어난 기능으로 건강한 생활을 돕습니다. 원주시는 옷칠문화의 중심지로서 이렇듯 소중한 전통가치를 계승·발전시키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예대전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문화 발전의 기틀입니다. 이번 공예대전은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실용성을 갖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옷칠공예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쓰신 (사)원주옷칠문화진흥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적극 후원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옷칠공예의 저변을 확대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원주시장 원창묵



19회 원주시한국옷칠공예대전 심사가 끝났다. 코로나19 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개최된 터라 작년에 비해 출품 수량은 줄어들었다. 운영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과 센터의 관리자들과 그리고 지자체의 담당자들은 공정한 심사와 운영에 각별했다. 운영위와 주최 측 모두 투명하고 합리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지역성의 문화는 자연과 생태성에 뿌리를 둔다. 원주는 옷나무가 식생하기에 적합한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보전하는 지역이다. 오래 전부터 인류는 자신들의 생활용품과 유산을 어떻게 오래 보전하느냐에 온 역량을 투자했다. 자연에서 추출한 소재들은 자연으로 귀속하고자 몸부림친다. 금속은 그들의 고향인 자연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식하고 목재는 부패하며 도자기는 골동품에서 보듯이 뼈대의 밀도를 비운다. 옷칠은 영원성을 꿈꾸는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추출한 비장의 물질이었다. 보존성을 배가 시키며 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탁월한 재료로 활용되어왔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이유로 값싼 화학약품에 한때 밀려나기도 했지만 우리가 삶의 문화를 고양시키고 지역문화를 전파하는 관점에서 원주의 옷칠은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학계에 맡겨진 책무에 대해 응답할 때가 되었다. 함께 이마를 맞대고 원주옷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로를 탐구하는데 집중해야한다.

제19회 공예대전 출품 작품들이 질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긴 안목으로 고려되어야할 문제이다. 원주옷칠문화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이제 변혁의 임계점에 와 있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공정하고 방향성을 갖춘 운영을 통하여 한 해 두 해 경륜을 축적할 때 우리지역의 옷칠 공예는 신뢰와 평판을 담보할 것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누릴 수 있다.

원주옷칠문화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지역의 학계, 그리고 예술가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2020년 10월 27일
제19회원주시한국옷칠공예대전 운영위원장 김진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제19회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대전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분들과 함께해주신 공예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뛰어난 작품들을 선보여주신 영예의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도료인 옷칠은 항균·난연·방수 효과가 뛰어나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 속에서 이천 년이 넘는 역사를 함께해왔습니다.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은 이러한 옷칠 문화를 전승하고 나아가 현대성을 지닌 문화로 꾸준히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옷칠공예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공예인들이 이 행사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축제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공예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인 여러분이 창작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우리 공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예 유통망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옷칠공예가 국민들에게 민족의 생활문화와 역사를 담은 예술로서 사랑받고, 해외에서도 그 실용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전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옷칠공예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정재숙입니다.

‘제19회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출품해주신 18인의 수상자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원주는 옷의 생산부터 다양한 옷칠 작품의 제작까지 명실상부한 옷칠 공예의 중심지입니다.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은 스무 해에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옷칠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여 우리 전통문화와 현대 예술의 소중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장인 정신을 통해 탄생한 인고의 결실입니다. 전통 기술과 현대 감각이 조화를 이룬 작품들은 옷칠 문화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옷칠 공예가 활성화되어 많은 이들이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일상에서 쉽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옷칠 문화의 보전을 위해 전력하신 참여자 분들과 원주시, 사단법인 원주옷칠문화진흥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화재청장 정 재 숙



제19회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전통 옷칠공예 계승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이번 옷칠공예대전 행사를 준비해 주신 사단법인 원주옷칠문화진흥회 김상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우수한 작품을 선보여 주신 전국의 옷칠 공예 작가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옷칠 공예품에는 실용성은 물론 공산품이 흉내 낼 수 없는 고유의 정교함과 예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에 새롭게 창조된 옷칠공예 작품에는 우리민족의 지혜와 기술적 기지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현대의 미적 감각까지 가미되어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은 이러한 국내 최고 수준의 옷칠 공예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의미 있는 행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 옷칠공예 기술의 계승 발전과 우수 공예품 발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원주 옷의 우수성은 물론 국내 전통 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옷칠공예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원주옷칠문화진흥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공예대전이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원주시의회 의장 유 석 연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한 옷칠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역사요 문화입니다.
 낙랑고분, 고구려의 고분, 서울 석천동의 백제고분, 무령왕릉, 경주의 천마총, 안압지등 거의 모든 유적지에서 출토 될 만큼 우리 민족의 애환과 기쁨을 함께 해 왔습니다.
 지금 인류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역사 이래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역으로 환경오염이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본질적인 삶 자체가 흔들리면서 엄청난 혼돈과 변화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자책을 해도 대처하기에는 미약하고 역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를 접하면서 모든 영역과 부문에서 방안을 찾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환경 분야만큼은 더욱 더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옷칠은 환경 친화적이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공해 도료입니다.
 또한 항암에 효과가 있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모든 도료를 현실적으로 옷칠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우리네 삶속에서 상용화 할 수 있으면 이 또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옷칠 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인 분들의 노력과 시민의 사랑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옷’예술의 결과물인 공예작품이 『제19회 한국옷칠공예대전』에서 모습을 선보입니다.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옷 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인 분들, 옷나무를 키우시는 농업인 여러분 아울러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상수이사장님과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19회 한국옷칠공예대전”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회의원 송 기 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제 19회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공예대전에서 한층 더 높아진 작품의 예술성을 보여주신 수상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매년 옷공예의 보존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주는 국내 옷나무 주산지로 손에 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옷의 품질 또한 좋아 전국의 공예인들이 옷칠계승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지역의 자산입니다. 원주시의 한국옷칠공예대전이 19회까지 오기까지 지난 시간 여러 공예인분들과 원주옷칠문화진흥회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역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짐으로 공예품을 감상하는데 온라인 콘텐츠와 잘 연계 되어 현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예인 여러분들이 옷 문화를 오래 보존하고,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든든히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 19회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옷공예 문화의 전통을 오래 보존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아름다운 작품이 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광 재

심사평(1차)



「옷」은 우리 인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는 물질입니다. 약용, 식용, 접착제, 도료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쓰임이 많은 것으로써 그 귀함을 잘 아는 원주시에서 올해로 제19회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옷칠과 공예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원주시와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9회 원주시 한국옷칠 공예대전은 현대 부분, 전통 부분, 생활공예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접수 받은바 전통 35점, 현대 36점, 생활공예 9점 등 총 80점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출품작품 수가 줄어들어 아쉽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는 5심 합의제로 작품 한 점 한 점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합의하에 선정되었습니다. 1차 심사에서는 낙선 40점, 입선 14점, 특선 8점, 장려상 이상 18점을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출품작가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표합니다. 왕성한 창작의 열정과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하시기를 바라고 늘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27일
1차 심사위원장 김 성 호

심사평(2차)



우리가 현재 전통 공예라고 부르는 것들은 근대 이전에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던 물건들이었다. 이른바 실용적 차원의 도구, 혹은 당대의 종교, 신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다루어지던 것들이다. 그것은 분명 하나의 도구로서 기능적인 형태를 지녔고 색채와 문양 등이 없던 것들이다. 그도구가 요구 받는 특별한 목적 아래 순응하면서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미적인 고려, 조형적인 배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 남겨진, 의미를 부여받는 전통공예들이란 결국 이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것들이기도 하다. 그것들이 현재 보물이나 국보, 혹은 문화유물로 지정된 것들이다.

근대에 들어와 이전의 전통공예들은 과거의 물건으로 국한되거나 기계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산업용품들로 대체되었다. 그런가하면 미술이란 새로운 개념 아래 전적으로 시각적이고 미적인 요청에 의해 견인되는 작품으로서의 공예가 등장하거나 상품으로서의 공예, 또는 타장르의 미술작품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들이 등장하였다. 아울러 과거의 전통공예가 가능할 수 있었던 체제, 이념, 미감은 죄다 망실되고 그런 손맛도 망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전통공예라 일컫는 것들이 보여주는 수준 높은 존재감은 사라지기 힘들다. 미는 시간을 이기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통공예를 오늘에 되새기는 이유를 질문해보아야 한다.

이번 공모전에 올라온 작품들은 모두 옷칠에 의한 여러 가능성을 방증하는 공예품들이고 따라서 전통 옷칠의 격조와 수준을 작품의 피부에 올린 것들이다. 옷칠과 그것으로 마감된 피부를 거느린 사물(물건이자 작품)은 한 축으로는 전통 옷칠의 기법과 수준에 겨냥되어 있고 다른 한 축은 단지 전통적인 기법의 모방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현대공예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 둘을 조화롭게 만들어나가거나 충족시키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전체적으로 기법적인 면에서는 고른 편이었으나 결국 문제는 조형에 대한 안목과 세련된 미감의 표출에 있어 아쉬움이 컸다는 사실이다. 매력적인 물건으로서의 공예품, 인간의 손맛과 옷칠기법이 주는 깊고 견고한 표면이 서로 상승하면서 자아내는 품위 있는 시각물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우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 전통 공예품이 지닌 뛰어난 예술성과 우수한 옷칠기법이 서로 맞물려 엮어나가는 지점, 그리고 과거의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미감이나 이곳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차원을 두루 충족하는 지점에서의 고려 또한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조형감과 세련된 미감, 재료 자체의 물질감과 색채, 그리고 문양의 완성도 높은 성취에는 미흡해보였다. 단지 기법을 고수한다고 해서, 혹은 이전의 것을 유사하게 만든다고 해서 전통공예를 계승하거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 무엇인가를 성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재료의 완벽한 구사나 기법의 숙련도 못지않게 조형에 대한 탁월한 감각과 안목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수공의 솜씨와 구지 만들어야 할 이유를 상실한 것들을 양산하는 곤혹스러움에서 또한 자유롭기도 힘들다. 그러니 결국 문제는 아름다운 조형감각을 두른 공예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일이다.

2020년 10월 27일
2차 심사위원장 박 영 택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진열	前 상지영서대학교 총장
운영위원	김경남	세명대학교 대학원 전통문화행정학과 교수
	김병호	백석대학교 전문대학원 기독교 미술학과 교수
	안병진	前 여주대학교 교수(걸은 도자문화학교 교장)
	엄병일	원주시 경제문화국장
	유선자	원주시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이광록	세경대학교 겸임교수(팔괴 공작소 대표)
	이종현	울칠회화작가
	임근우	강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최옥영	강릉원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한상철	상지대학교 교수(사진작가)

심사위원

1차 심사 2020. 9. 15

심사위원장	김성호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심사위원	김병율	단국대학교 교수
	박귀래	강원도 무형문화재
	이창식	강원도문화재위원, 세명대학교 교수
	장용만	상지대학교 생활조형 디자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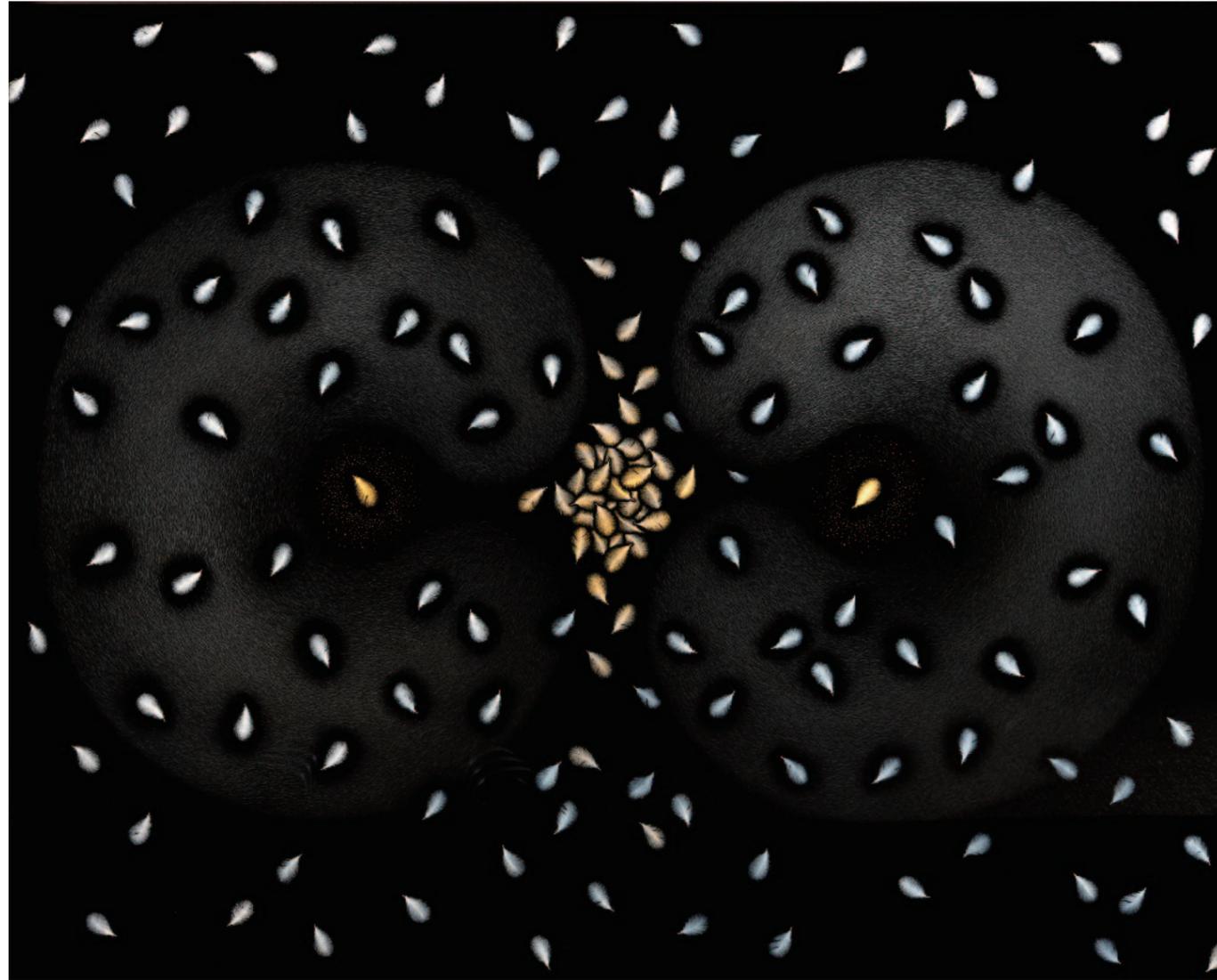
2차 심사 2020. 9. 16

심사위원장	박영택	경기대학교 미술대학교수 미술평론가
심사위원	김상수	강원도 무형문화재
	이승철	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장
	정두진	강원대학교 미술학과 외래교수
	최석현	한국전통공예 명장 빛고을 공예문화마루 이사장

수상작

대상	강호석			
금상	임대영	박미란	김하원	
은상	윤태성	이윤화		
일사특별상	이연길			
동상	문철호	안영호	석문진	
장려상	이향미	이은경	윤상희	
	안소영	홍귀화	김은곤	
	최다운	오은서		
특선	최다영	김현주	김상윤	
	성광명	김의식	진영대	
	임선미	황미숙		
입선	김아람	유정희	김득환	
	양상하	유지윤	조대용	
	김 유	김금영	김지현	
	최데레사	이해영	배영달	
	선재화	박신영		

대상 | 강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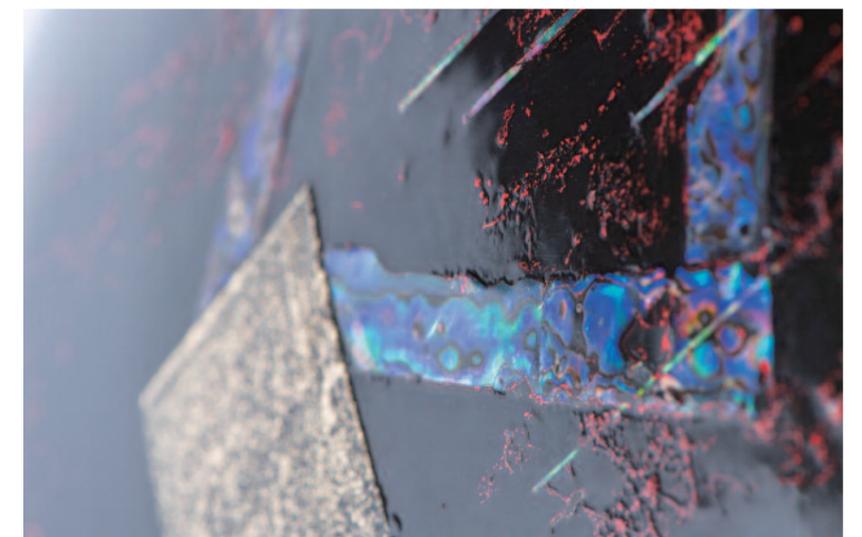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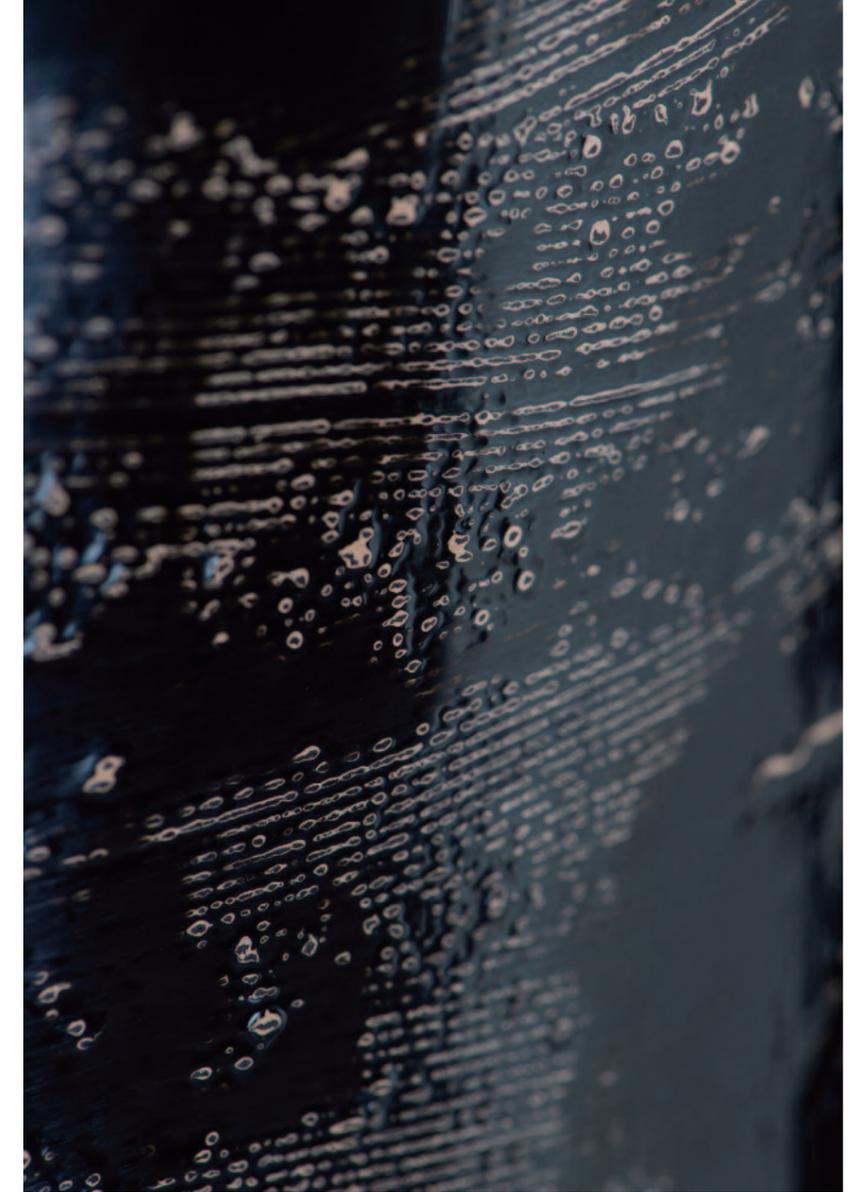
잉태된 그리움 2020 117×92×4cm



금상 | 임대영



생각하는 마음(진칠화병) 134×262×163×1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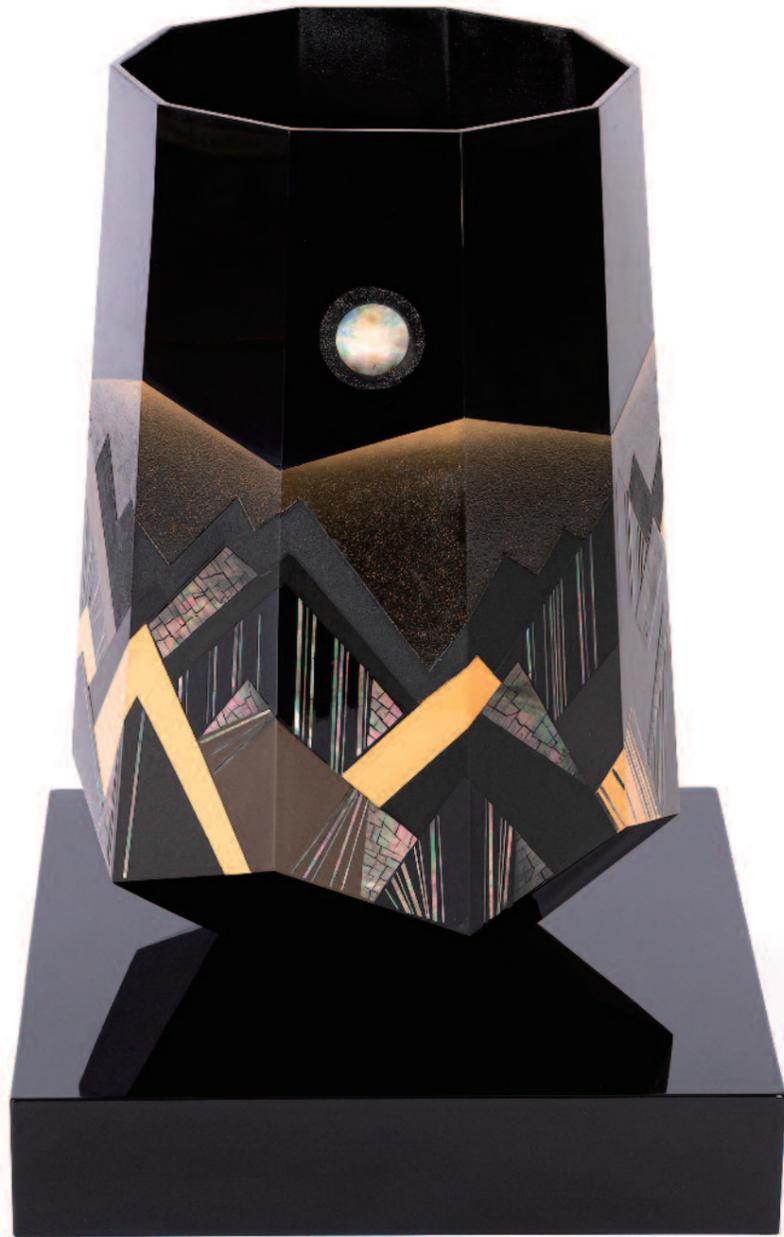
금상 | 박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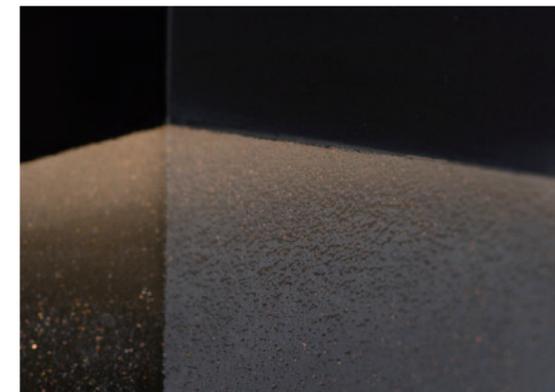
흑, 주칠 초충도 삼층장 61×36.5×107cm



금상 | 김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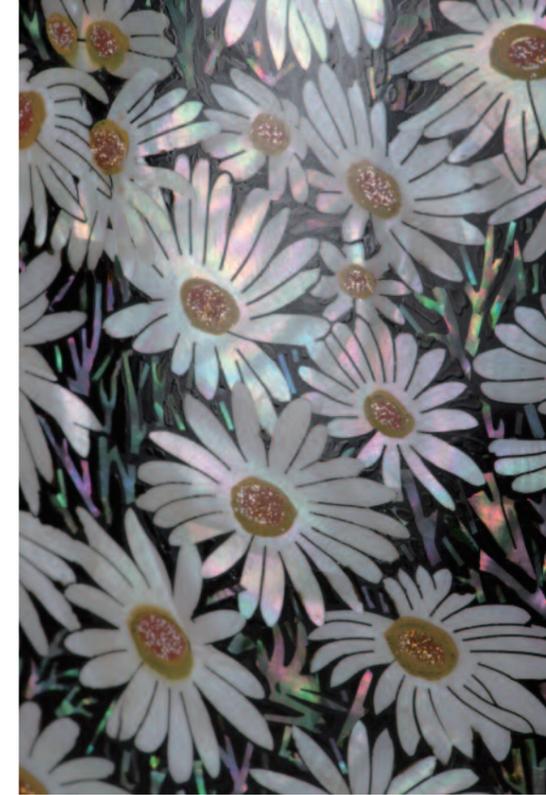
일월오악도 건칠화병 34×34×49.5cm



은상 | 윤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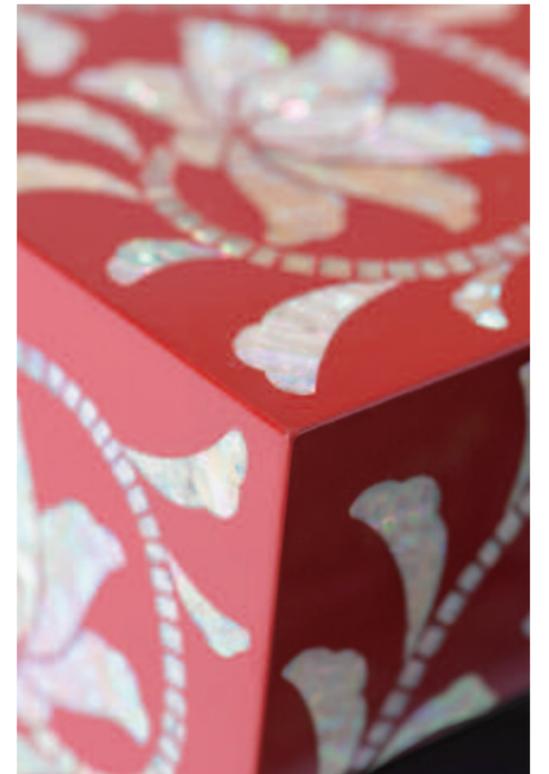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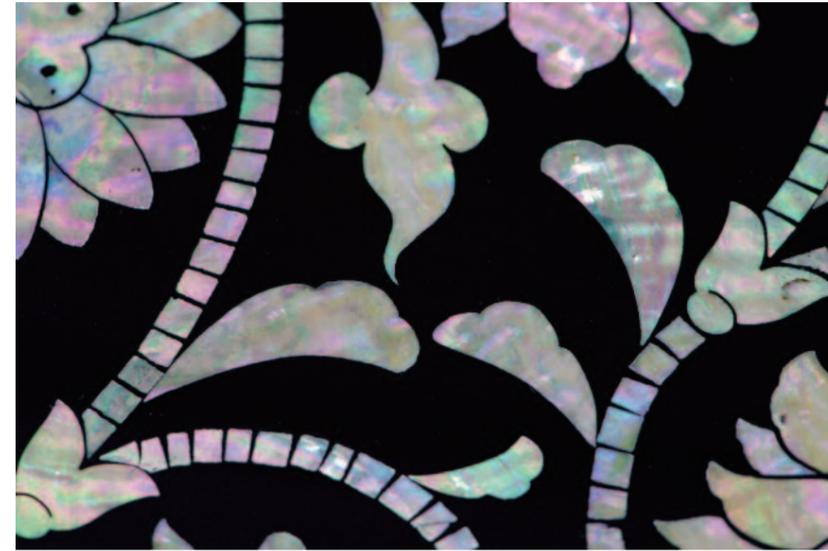
형 20 35×50cm



은상 | 이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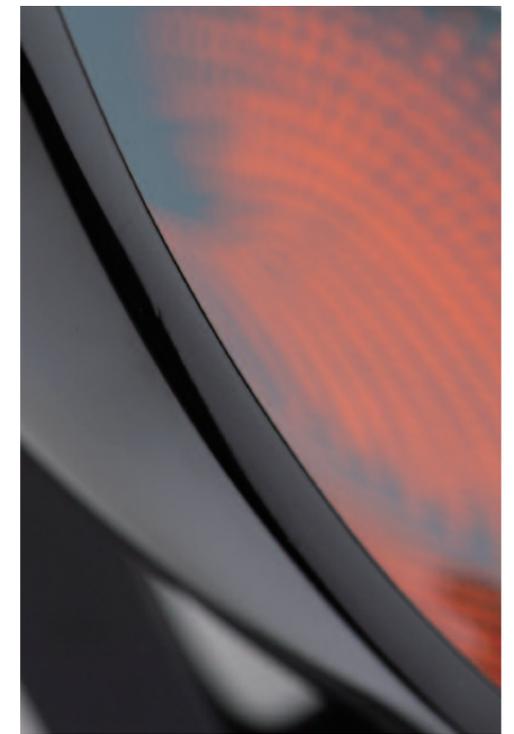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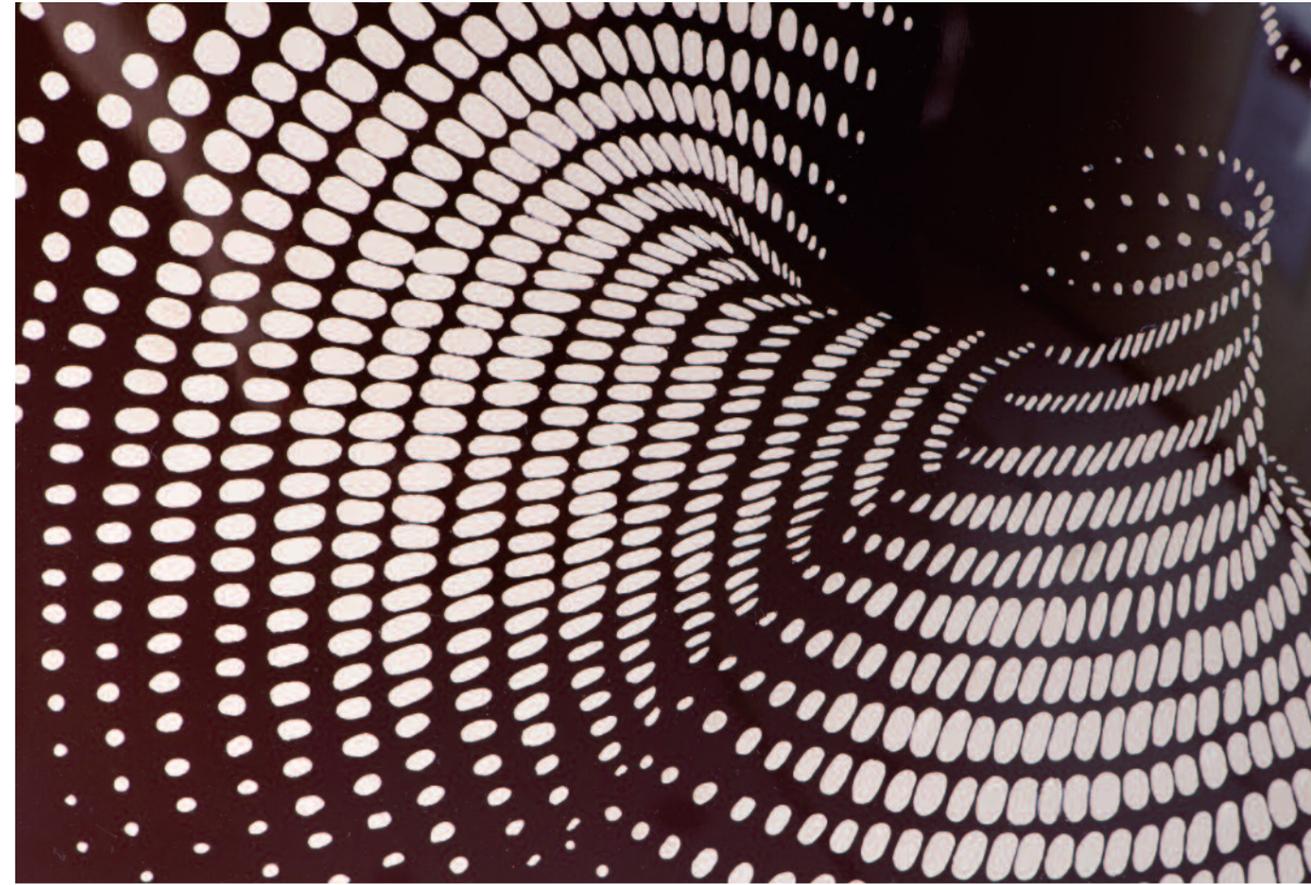
국모란당초문흑·주칠당함 30×30×1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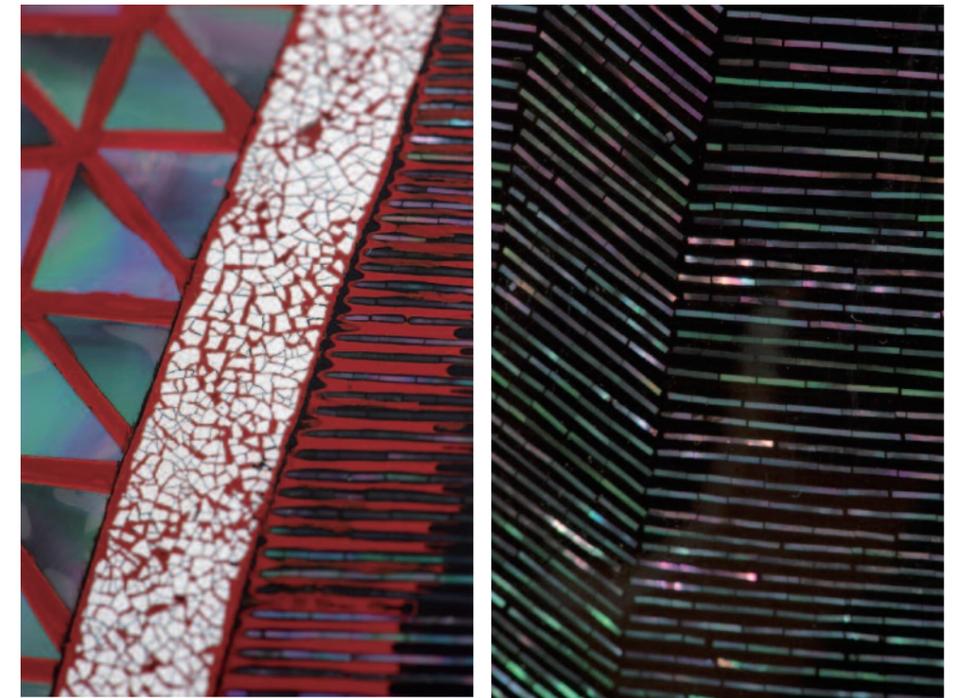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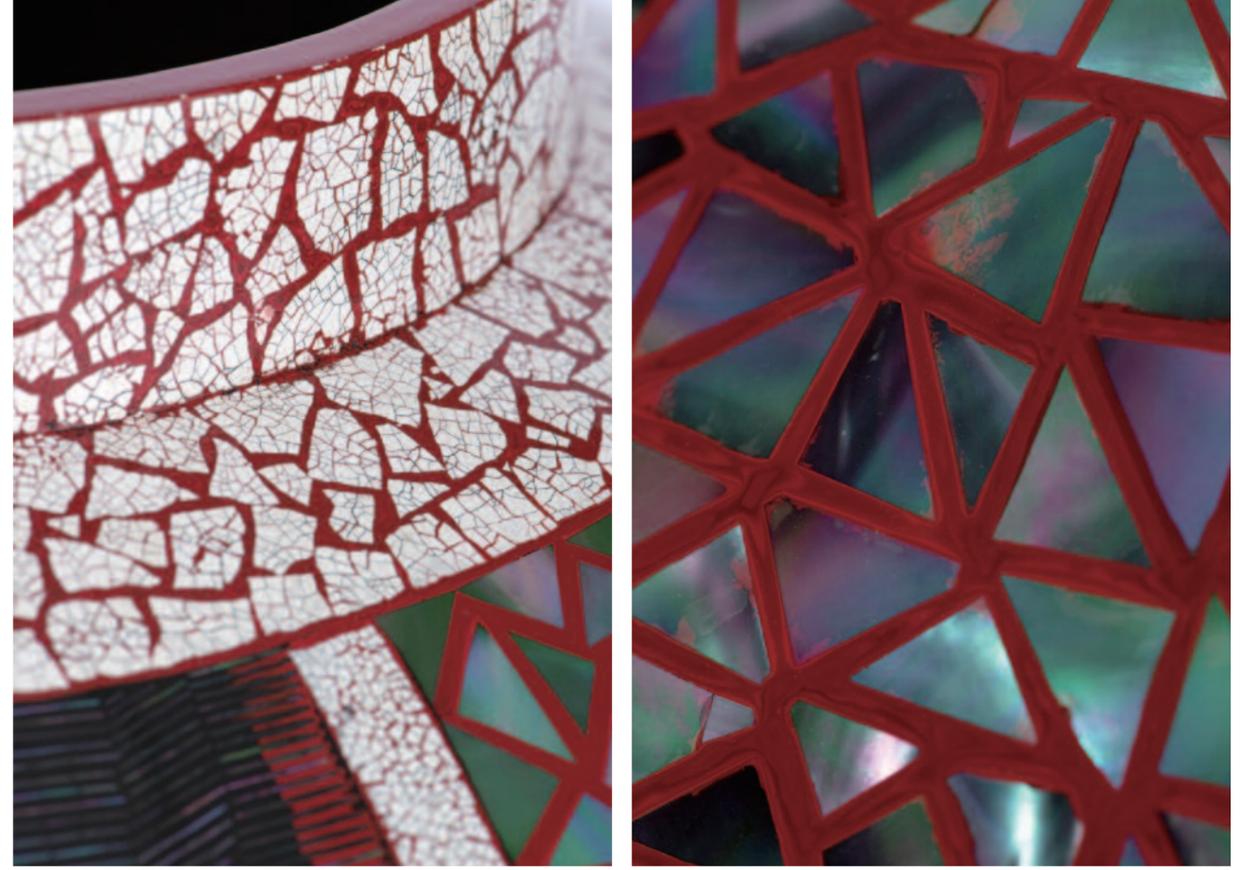
일사특별상 | 이연길



탁상용 액자 35×35cm



동상 | 문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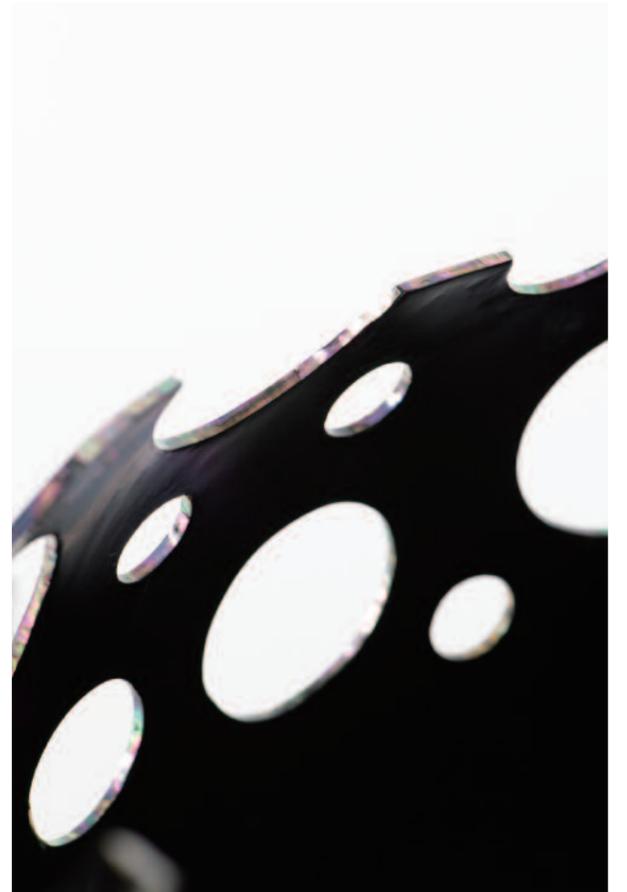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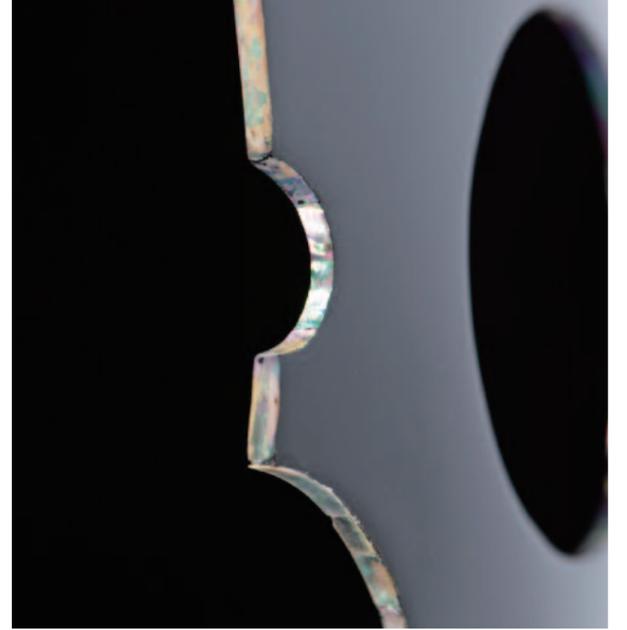


각양각색 재발견(건칠항아리) 50×50×55cm

동상 | 안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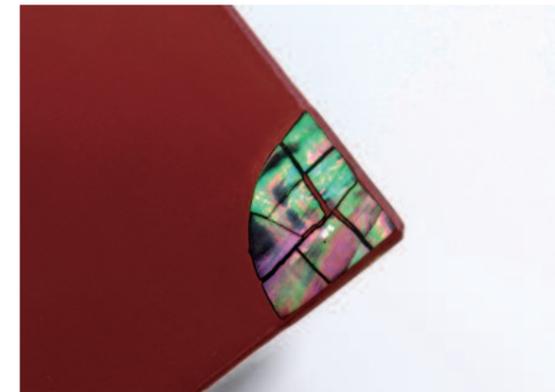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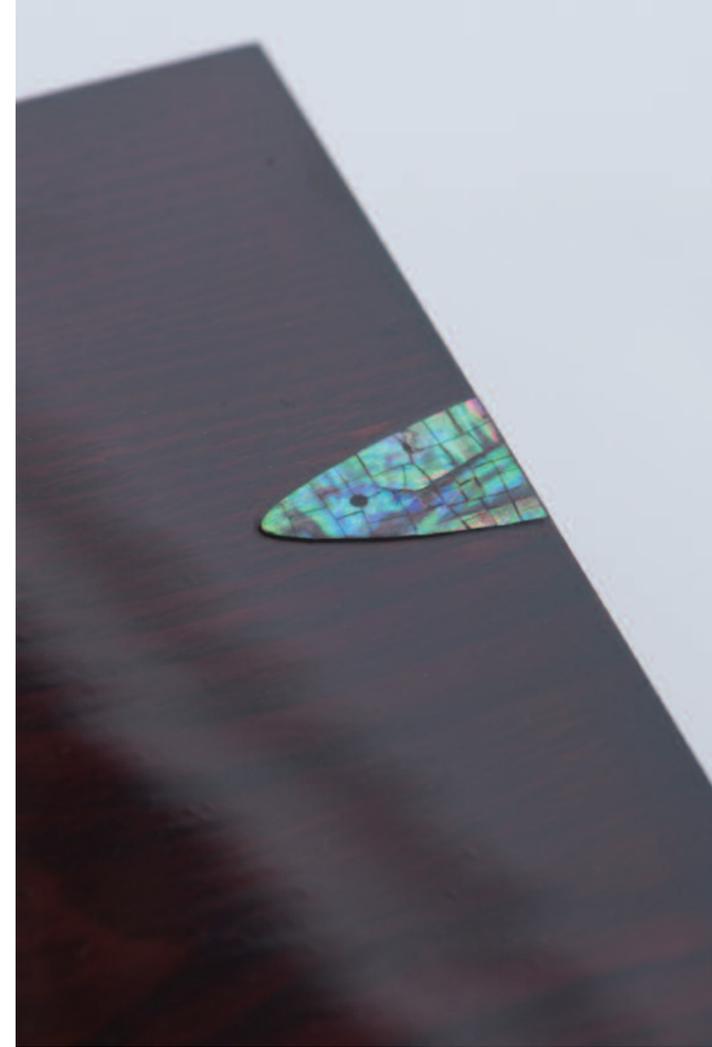
환-1 52×52×42cm



동상 | 석문진



조선(朝鮮)에도 메리크리스마스 27×27×9.5cm



장려상 | 이향미



엄마생각 60×60×40cm

이은경 |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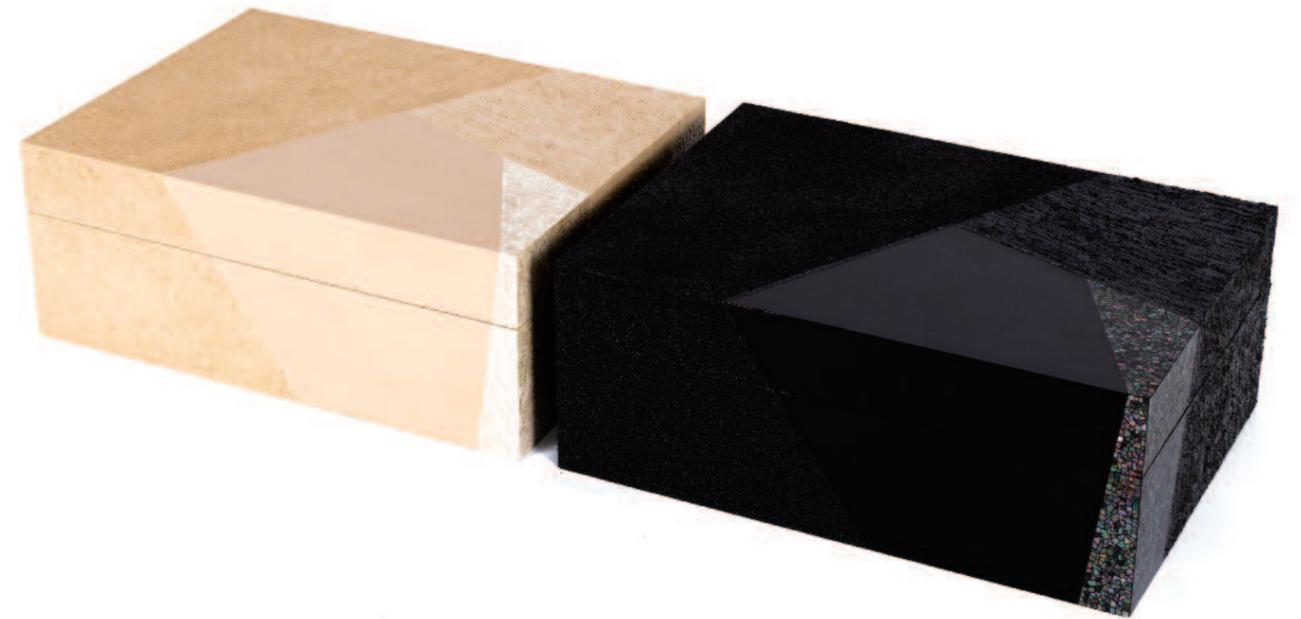
용틀임 180×122×5cm

장려상 | 윤상희



양옥도 35×15.5×18cm

안소영 | 장려상



시간담다 58×38.5×21.5cm

장려상 | 홍귀화



어울림 32×2.5cm/17.5×9cm/15×10cm/11×8cm

김은곤 | 장려상



목기 찻잔 다과상 43×43×15cm / 43×33×15cm

장려상 | 최다운



조각보 문양 경대 25.2×34.1×22.2cm

오은서 | 장려상



수궁가 50×50×20.5cm

특선 | 최다영



우주(진철) 50×52cm/48×49.5cm/46×47.5cm

김현주 | 특선



국화당초문 함 76×46.5×60cm

특선 | 김상윤



기쁜 소식 87×47×112cm

성광명 |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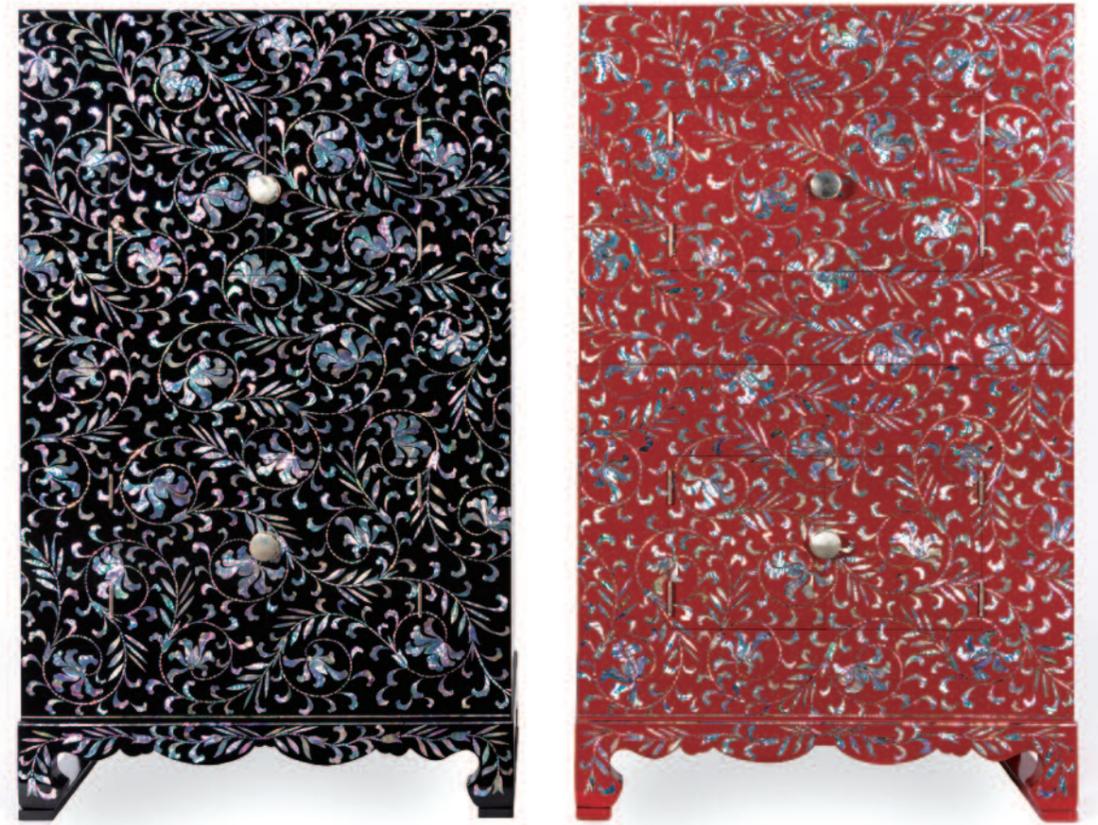
검붉은 사랑 52×52×42cm

특선 | 김의식



풍혈반 68×68×32cm/47×47×28cm

진영대 | 특선



모란당초문 이층농 55.3×33.3×94cm

특선 | 임선미



길상화 60×70×4.8cm

황미숙 | 특선



상치가 별이되어 21×21×12cm

입선 | 김아람



흩어지는 매화 25×25×42cm

유정희 | 입선



현무의 일출 49×49×4cm

입선 | 김득환



각양각색 50×176×4.5cm

양상하 | 입선



당초문 빗집 27×27×28.5cm

입선 | 유지윤



나전 건칠 포도문 자라병 32×36×14cm

조대용 | 입선



나전칠기 다도함 50×20×20cm

입선 | 김유



요지경 40×10cm/63×32×15cm/10×6cm

김금영 | 입선



국기함 10×30×7cm

입선 | 김지현



지승장식함 36×19×9cm

최테레사 | 입선



기호 38×38×42cm

입선 | 이해영



백두에서 한라까지(원제:접시탑) 19.3×19.3×12cm

배영달 | 입선



죽절 완자 사모반 51.5×73×51cm

입선 | 선재화



마주앉아 40×18.5×5cm

박신영 | 입선



꿈을 찾아서 120×80×5cm

수상자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규격
대상	강호석	잉태된 그리움 2020	117×92×4cm
금상	임대영	생각하는 마음(건칠화병)	134×262×163×135cm
금상	박미란	흑, 주칠 초충도 삼층장	61×36.5×107cm
금상	김하원	일월오악도 건칠화병	34×34×49.5cm
은상	윤태성	형 20	35×50cm
은상	이윤희	국모란당초문흑주칠당함	30×30×11.5cm
일사특별상	이연길	탁상용 액자	35×35cm
동상	문철호	각양각색 재발견(건칠항아리)	50×50×55cm
동상	안영호	환-1	52×52×42cm
동상	석문진	조선(朝鮮)에도 메리크리스마스	27×27×9.5cm
장려상	이향미	엄마생각	60×60×40cm
장려상	이은경	용틀임	180×122×5cm
장려상	윤상희	양옥도	35×15.5×18cm
장려상	안소영	시간답다	58×38.5×21.5cm
장려상	홍귀화	어울림	32×2.5cm/17.5×9cm/15×10cm/11×8cm
장려상	김은곤	목기 잣잔 다과상	43×43×15cm/43×33×15cm
장려상	최다은	조각보 문양 경대	25.2×34.1×22.2cm
장려상	오은서	수궁가	50×50×20.5cm
특선	최다영	우주(건칠)	50×52cm/48×49.5cm/46×47.5cm
특선	김현주	국화당초문 함	76×46.5×60cm
특선	김상윤	기쁜 소식	87×47×112cm
특선	성광명	검 붉은 사랑	52×52×42cm
특선	김의식	풍혈반	68×68×32cm/47×47×28cm
특선	진영대	모란당초문 이충농	55.3×33.3×94cm
특선	임선미	길상화	60×70×4.8cm
특선	황미숙	상처가 별이되어	21×21×12cm
입선	김아람	흩어지는 매화(현대)	25×25×42cm
입선	유정희	현무의 일출(전통)	49×49×4cm
입선	김득환	각양각색	50×176×4.5cm
입선	양상하	당초문 빗집	27×27×28.5cm
입선	유지운	나전 건칠 포도문 자라병	32×36×14cm
입선	조대용	나전 칠기다도함	50×20×20cm
입선	김 유	요지경	40×10cm/63×32×15cm/10×6cm
입선	김금영	국기함	10×30×7cm
입선	김지현	지승장식함	36×19×9cm
입선	최테레사	기호	38×38×42cm
입선	이해영	백두에서 한라까지(원제:접시탑)	19.3×19.3×12cm
입선	배영달	죽절완자 사모반	51.5×73×51cm
입선	선재화	마주 앉아	40×18.5×5cm
입선	박신영	꿈을 찾아서	120×80×5cm

역대 수상자

제1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김상수	초중문양 건칠 항아리	문화관광부장관상	38×35cm
금상	윤선열	금관예물함	강원도지사상	45×35×20cm
은상	이성근	반상기(12절)	원주시장상	20×155cm
은상	하혜경	형태-99	원주시의회의장상	11×30×160cm
동상	심효은	축제	원주시장상	38×19×30cm
동상	박광균	홍칠5절	원주시의회의장상	25×25×10cm

제2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김선갑	모란당초문원반	문화관광부장관상	90×90×35cm
금상	임충휴	함	문화재청장상	37×24×19cm
금상	이돈호	주칠좌등	강원도지사상	29×29×110cm
은상	박정인	罍03	원주시장상	20×20×7cm/18×18×41.5cm
은상	박해리	동정	원주시의회의장상	40×32×41.5cm
동상	최상훈	나전완자문함	원주문화원장상	38×29.7×142cm
동상	한미애	가을소리	한국옷칠문화연구원장상	70×67×16.2cm

제3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이상목	모한문경함	문화관광부장관상	45×25×24cm
금상	조한구	건칠초문화병	문화재청장상	15.5×15.5cm
금상	김봉운	함	강원도지사상	30×30×15.5cm
은상	정명득	빛 이미지	원주시장상	40×32×41.5cm
은상	이돈호	백무늬 반닫이	원주시의회의장상	90×42×68cm
동상	방극완	12각 나전소반	원주문화원장상	45×45×40cm
동상	김도윤	연꽃다기세트	한국옷칠문화연구원장상	16.5×11.7×7cm

제4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금상	박강용	국화문교칠원형차상	문화재청장상	55×55×18cm
금상	김 천	나전포도문구절함	강원도지사상	34×34×9cm
은상	김용호	5일다기세트	원주시의회의장상	50×50×15cm
동상	문정선	다과상세트	원주문화원장상	57.5×36×13cm
동상	김용겸	통소반	한국옷칠문화연구원장상	46×46×15.5cm

역대 수상자

제5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장준철	당초문애기장	문화관광부장관상	57.3×40×91cm
금상	김성호	전칠수복문양상	문화재청장상	50×50×32cm
금상	진경희	칠화건다기세트	강원도지사상	39×39×11cm
은상	김은영	공감	원주시장상	11×11×45cm/11×11×32cm
은상	권영진	찾상	원주시의회의장상	39×39×16cm
동상	배영달	나전포도문 서류함	원주문화위원장상	38×27.5×11.2cm
동상	최영옥	성숙	한국울칠문화연구원장상	86×2.5×136cm

제6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김성호	건칠기' 2007	국무총리상	42×42×41cm
금상	박현실	나전반상기	문화재청장상	각각
금상	손문규	너울주칠예물함	원주시장상	58×31×32cm
은상	조한구	건칠당초문과기	원주시장상	50×50×15cm/40×40×15cm
은상	박경옥	고리금건칠분	원주시의회의장상	40×40×30cm
동상	홍귀화	지승울칠 짚함아리	원주시장상	35×48, 29×38cm
동상	김용관	매죽문갑(梅竹文匣)	원주시장상	70×32×32cm

제7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오삼록	전칠당초문 이층장	국무총리상	88×108×41cm
금상	정은진	2008 화병 I	문화재청장상	30×30×30cm
금상	장왕기	나전소나무접시	원주시장상	39×39×9cm
은상	이기상	관계	원주시의회의장상	26×18×90cm
은상	최상훈	나전연엽건칠과반	원주시장상	38.5×38.5×5.8cm
동상	고현숙	추신 - 0808	원주시장상	35×14.5×37cm
동상	엄재수	합죽칠선	원주시장상	35×27cm

제8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권영진	백무의이층농	국무총리상	75×40×122cm
금상	박미란	포도문건칠대반	문화재청장상	75×75cm
은상	이미숙	채화구절관	원주시장상	33×33×11cm
동상	정왕선	작품 2009	원주시장상	55×55×69cm
동상	이수진	Delight	원주시의회의장상	38×36×38cm

제9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이상훈	희노애락	국무총리상	76×29×30cm
금상	최상훈	나전 포도문쟁반	문화체육부장관상	47.8×47.8×5cm
은상	박경옥	돈궤	문화재청장상	78×38×36cm
은상	서상보	괴목나무 상감울칠문갑	문화재청장상	96×30×45cm
동상	박만순	운학홍배문머리장	원주시장상	84×40×70cm
동상	김종민	채화장식장	원주시장상	73×47×101cm
동상	한은정	맥의 흐름	원주시의회의장상	82×43cm

제10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성 용	운학문나정울칠 2층농	국무총리상	90×43×144cm
금상	배영달	나전호접당초문 관복함	문화체육부장관상	71.5×46×19cm
은상	이미숙	궤, 칠화	문화재청장상	45.5×26.5×24.5cm
은상	이인주	이휴-11	문화재청장상	27×27×32cm/ 29×29×36cm
동상	김동주	대궐반(소반)	원주시장상	34.5×34.5×31.5cm
동상	정은희	채화칠기 원반상	원주시의회의장상	60×60×30cm
일사특별상	배광우	나전상감 이층장	원주시장상	116×40×92cm

제11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최상훈	나전 포도문 삼층장	국무총리상	61.5×40×14.5cm
금상	정은희	피꽃과 참새	문화체육부장관상	68×37×50cm
은상	임재주	나전회포문 보석함	문화재청장상	31.5×15.7×12cm
은상	박미란	모란문 이층장	문화재청장상	112×72cm
동상	이연재	화려한 외출	원주시장상	100×58×52cm
동상	김종민	국향징집(의류보관함)	원주시의회의장상	72.5×47×84cm
일사특별상	박만기	주칠, 용 교의	원주시장상	60×80×90cm

제12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박만순	나전고려청자문책장	국무총리상	73×41.2×148.5cm
금상	김종민	운학건칠매병	문화체육부장관상	126×126×73cm
은상	김정숙	함	문화재청장상	42×28×12cm
은상	최민우	채화칠기원반함	문화재청장상	54×54×11cm
동상	강호석	쌍어무늬건칠대반	원주시장상	82.5×82.5×5.5cm
동상	김용호	채화주칠반상기세트	원주시의회의장상	-
일사특별상	최신의	나전풍혈반	원주시장상	47×47×29cm

역대 수상자

제13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김용도	나전(일사)당초문10각소반	국무총리상	48.5×51.0×2.5cm
금상	손문규	초충도 괴목 이층장	문화체육부장관상	67×39×96cm
은상	홍귀화	신부	문화재청장상	50×38×70cm
은상	양성미	12각소반	문화재청장상	52×52×31cm
동상	서상보	밀양 반단이	원주시장상	84×70×45cm
동상	박만기	차호	원주시의회의장상	8.5×8.5×9.5cm
일사특별상	최민우	채화칠기 국화당초문 책장	원주시장상	72×41×140cm

제14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구기선	연인	국무총리상	17×17×33.5cm/19×19×31cm
금상	최민우	채화칠기 포도문 이층농	문화체육부장관상	74×40×12cm
은상	김은희	조각보 원반	문화재청장상	43×43×30cm
은상	홍귀화	가을	문화재청장상	60×35×33cm
동상	김정오	건칠 연꽃잉어 화병	원주시장상	35×25×50cm
동상	강호석	깃, 달을 머금다 - 건칠대반	원주시의회의장상	82×82×15cm
일사특별상	이연길	함지박	원주시장상	75×59×19.5cm

제15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박만기	건칠 연화문 달항아리	국무총리상	54×54×56cm
금상	류근환	함	문화체육부장관상	63×34×26cm
은상	김인영	나전 궁중서류함	원주시장상	58.3×36×128.7cm/50×36×128.7cm
은상	이미숙	문갑	문화재청장상	77.2×38.2×45.5cm
일사특별상	오왕택	나전칠 등꽃 모란문 탁자장	문화재청장상	79.5×32×35cm
동상	김경자	건칠 화병	원주시장상	60×30×27cm
동상	김순심	소녀의 꿈	원주시의회의장상	70×45×45cm

제16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오왕택	웃칠나전함 - 담장과 능소화	국무총리상	47×25.5×22.5cm
금상	권미정	달이랑 별이랑	문화체육부장관상	47×47cm
은상	김득환	초상화 보관함	문화재청장상	102×23×21cm
은상	김의식	모란문 풍혈반 세트	문화재청장상	68×68×31/47×47×29cm
일사특별상	김성호	낙화희(樂花喜)	원주시장상	53×53×55cm
동상	강호석	잉태된 그리움	원주시의회의장상	90×90×3.5cm
동상	이혜영	한국의 아침(부제:한국의 탑)	원주시장상	7.6×7.6×8cm/10.4×10.4×7cm/14×14×5.7cm 17×17×4cm/20×20×4.2cm/87×50×5cm

제17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최태문	흑.주칠 모란당초 호족반	국무총리상	45×45×30cm/38×38×26cm
금상	박재영	건칠화병 - '그리움'	문화체육부장관상	43×37×67cm
은상	김정희	품격	문화재청장상	42×42×16cm
일사상	김하원	빗살무늬 건칠 화병	원주시장상	36×36×40cm
동상	강호석	고봉우 - 화	원주시장상	60×100cm
동상	김성호	별이 빛나는 밤에	원주시장상	52×52×35cm
동상	진영대	모란당초 머릿장 세트	원주시장상	50×31.5×63.5cm

제18회

수상내역	이름	작품명	상훈	규격
대상	정병밀	결정으로 하나된 열정V	국무총리상	80×138×18cm
금상	김하원	오색 빗살문양 건칠화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42×42×45cm
은상	김용철	형상 2019	문화재청장상	100×30×88cm
은상	천기영	건칠	문화재청장상	62×62×10cm/48×48×9cm
일사특별상	조대용	율(律)	원주시장상	30×30×12cm
동상	강호석	깃, 빛이되다	원주시장상	180×130cm
동상	김기철	퇴계원 산대놀이탈	원주시장상	20.5×25×12cm
동상	김의식	모란 나비문 훈수함	원주시의회의장상	32×60×32cm
동상	최다영	건칠 엮은문함	원주시장상	41×31×61cm

제19회 원주시
한국 **오**칠
공예대전

발행일 2020년 10월 26일
발행처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 TEL 033-742-2111
기획 김상수 (사)원주오칠문화진흥회 이사장
편집 손금숙 (사)원주오칠문화진흥회 사무국장
제작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TEL 033-260-9400

© 이 책에 게재된 모든 자료는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전대 또는 복사를 금합니다.
이를 필요로 할 때는 발행인과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All rights are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be reproduced in part or whole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